

이형일 부총리,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대외리스크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 확대

- 통상·공급망·실물·금융 등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정상외교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그간 이행 상황 점검
-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12일(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세부 추진방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정부는 학계·민간 전문가·재외공관 등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무역 블록화 심화 등 리스크에 대응하여,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여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및 비축 확대, 해외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구조개선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 등을 활용한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실물·금융시장에 걸친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주요국 재정 동향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외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상 협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하여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실질적인 경제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그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6월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점검한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 주요국과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추가 체결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한 협력 기반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 간 협력성고가 우리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주요 협력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 간 체결된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해외투자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정부간 협력 등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결집하는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수주 성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 및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에 발표한 「GVCМ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GVCМ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GVCМ은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하여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이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VCМ은 ❶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❷개도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GVCМ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❸크레딧 기록·발행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괄]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대경장>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oojw94@korea.kr)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총괄>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sangm25@korea.kr)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3-5810)
<총괄>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진경휘 (jkh0710@korea.kr)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혜선 (044-201-3516)
<총괄>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윤정 (trulylucky@korea.kr)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15-7710)
<총괄>	경제외교이행팀	담당자	사무관	최재원 (choijw15@korea.kr)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 계획]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710)
<총괄>	아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오현 (hohohohyun@korea.kr)

[GVCM 세부 추진방안]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총괄>	녹색기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① (신뢰성) 국제기구 협력 + 첨단기술 활용 → 시장 신뢰 개선

- (국제기구 협력) UNFCCC, GGGI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신뢰 확보
- (첨단 기술) 데이터 수집·분석(인공위성, AI 등), 탄소 크레딧 기록·추적(블록체인) 등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신뢰도 개선
 - GVCM을 AI·블록체인 등 활용처로 활용하면 GVCM이 AI·블록체인과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하는 기반도 제공 가능

② (새로운 기회 제공) 기후테크 육성 + 개도국 지속가능성장 지원

- (기후테크 육성) 방법론이 미비한 첨단 기후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 발판 제공
 -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GVCM이 활성화 되면 세계적인 탄소 감축 프로젝트 개발자,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한국에 유치 가능
- (개도국 개발) 탄소 감축 사업 설계시, 개도국에 기술·제도 노하우를 동시에 전수하여 개도국 지속가능성장 지원

③ (K-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주도로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한국, 선진국, 개도국 등 GVCM 참여자 모두 혜택*을 보는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
 - * (선진국)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 / (개도국) 개발 자원 확보, 기술 이전